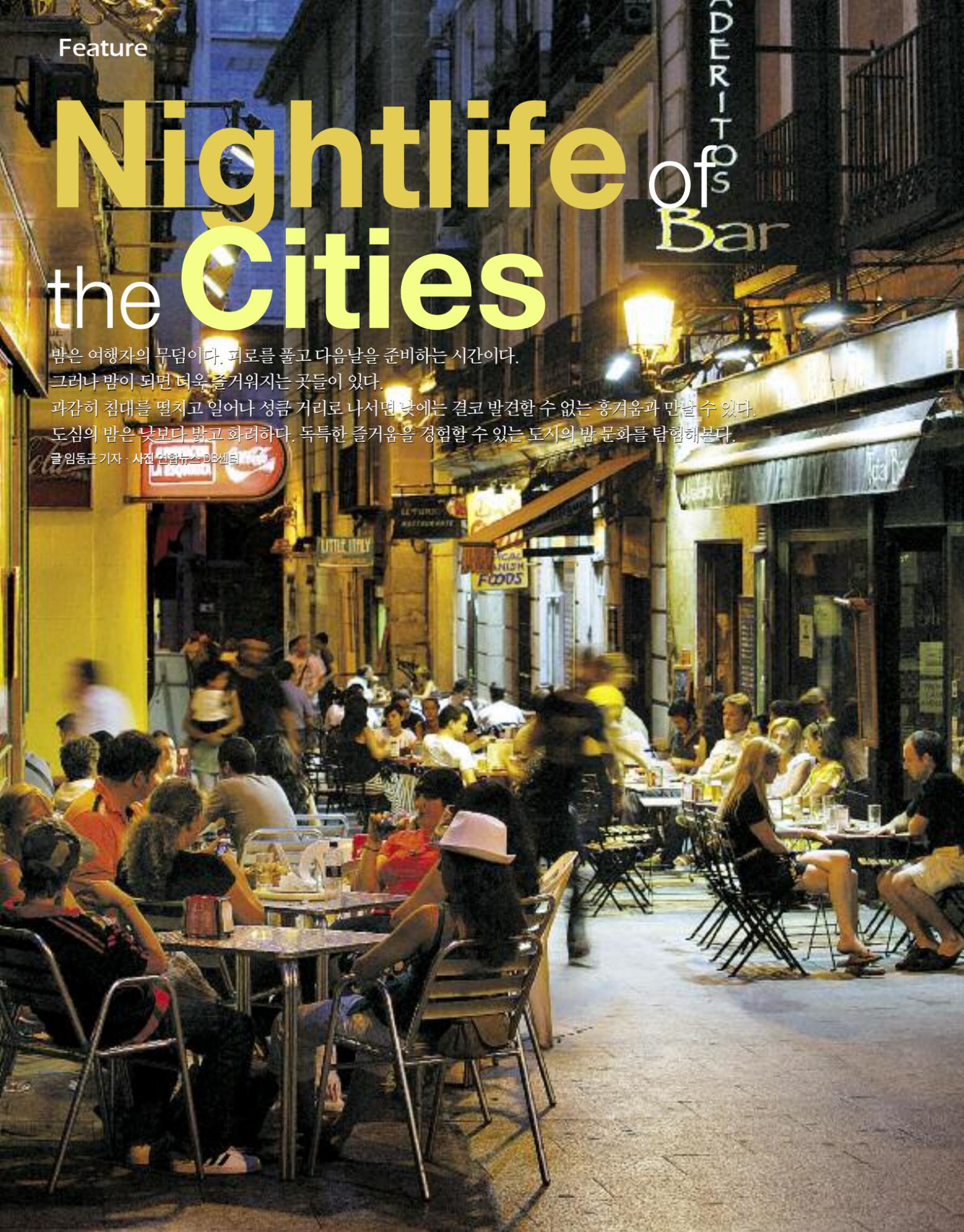


# Nightlife of the Cities

밤은 여행자의 무덤이다. 피로를 풀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더욱 즐거워지는 곳들이 있다. 과감히 침대를 떨치고 일어나 성큼 거리로 나서면 낮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흥겨움과 만날 수 있다. 도심의 밤은 낮보다 밝고 화려하다. 독특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의 밤 문화를 탐험해본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센터



## 스페인 마드리드 밤의 열기 속으로, 타파스 바

‘열정의 나라’ 스페인에서 초저녁부터 꿈나라로 향하는 것은 여행의 진정한 묘미를 모르는 일이다. 이글거리던 태양이 잿아들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 거리는 낮보다 뜨거운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타파스(Tapas) 바에서는 술잔을 기울이는 흥겨운 시간이 마련되고, 플라멩코 극장에서는 격정적인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해** 발 646m의 카스티야 평원 한가운데 위치한 스페인 마드리드는 유럽 국가의 수도 중 가장 높은 곳에서 들어서 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오래된 건축물과 도시 위를 뒤덮은 코발트빛 하늘, 그 모습과 빛깔을 화폭에 담은 예술가들의 작품 등 ‘천국보다도

만족스런 도시’라는 옛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여행지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행자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절대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밤의 여흥이다.

이글거리던 한낮의 태양이 잿아들고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마드리드 도심은 축제의 퍼레이드라도 벌어진 듯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매일 밤 광장과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바와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떠들썩하다.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저녁식사를 하고, 자정이 넘으면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낸다. 마드리드의 밤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이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타파스 바’ 몇 군데를 방문하면 마드리드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타파스 바는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시켜놓고 맥주, 와인, 음료를 마시는 곳으로 광장이나 골목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 예술가들의 아지트 등 각기 다른 분위기의 바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요르 광장 동쪽의 산타아나(Santa Ana) 광장에서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까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바의 내부는 일반 식당처럼 꾸며져 있지만 광장이나 행길에 놓인 탁자에는 간단한 음식 두세 개와 함께 맥주나 와인을 들이켜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곳에서는 고풍스러운 정통의 ‘산타아나’를 비롯해 중세 분위기의 ‘보데가스 멜리베아(Bodegas Melibeja)’, ‘라소베르비아(La Soberbia)’ 등이 대표적인 타파스 바이다.

푸에르타 델 솔을 지나 몬테라(Montera) 가를 따라 가면 ‘스톱 마드리드(Stop Madrid)’라는 소시지와 와인으로 유명한 바에 닿게 된다. 크지 않은 바에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고,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서야 하기도 한다. 왓지떨길 흥겨운 스페인 바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곳이다.

북쪽의 추에카(Chueca) 광장에는 마드리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시에라(Sierra)’가 있다. 현지인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 또 추에카 광장 서쪽으로는 예술가 거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록, 재즈, 퓨전 등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미술가 및 음악가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Enjoy Tip** 타파스 바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관광 안내소에서 마드리드 지도를 구한 후 방문하고 싶은 곳을 지도에 표시해 달라고 한다. 지도에서 바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동선을 그린 후 걸어서 움직이도록 한다.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맥주나 와인 한 잔과 함께 음식 몇 가지를 시키면 된다.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타파스 바는 서너 곳만 돌아봐도 보통 자정을 넘기기 쉽다. 숙소가 가까지 않다면 돌아갈 때는 안전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다.



## 홍콩 화려하고 낭만적인 밤 풍경

쇼핑과 미식의 도시 홍콩.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홍콩의 밤풍경이다. 도심의 도로를 따라 가면 화려한 대형 간판들이 눈을 휘둥그렇게 하고, 고층 빌딩들은 불빛의 향연을 펼친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트렌디한 곳인 소호(SOHO)의 카페와 식당들은 여행자에게 최고의 낭만을 선사한다.

**하**콩의 밤은 휘황찬란하다. 저녁이 되면 수많은 초고층 빌딩들에 조명  
이 들어오고, 거리의 간판은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을 밝힌다. 매일  
매일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인 듯 밤이면 화려한 빛으로 물들어 관광  
객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한다.

그중 가장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장면은 역시 '백만 불짜리 야경'으로 알려진  
홍콩 섬의 밤풍경이다. 매일 저녁 8시 카오룽(Kowloon) 반도에서 바다 건너 홍콩  
섬을 건너다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장관을 연출한다. 관광객들  
은 그저 자리를 잡고 앉아 18분 간 진행되는 빌딩들의 빛의 향연에 빠져들면 그  
만이다.

선상에서 야경을 즐기는 것도 홍콩에서만 맛볼 수 있는 낭만이다. 홍콩 섬의 센  
트럴(Central)과 카오룽 반도의 침사추이를 100년 넘게 있고 있는 스타 페리(Star  
Ferry)에 오르면 해상에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양쪽의 야경을 모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은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쁘다.

홍콩 섬의 '빅토리아 피크(Victoria Peak)'는 홍콩의 야경을 대표하는 또 다른 명  
소이다. 그중에서도 피크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스카이 테라스(Sky Terrace)'는  
가장 인기 있는 전망대이다.

맑은 날 이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발아래로 홍콩 섬과 카오룽 반도의  
야경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야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  
면 곧바로 인화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더 피크 타워 스카이 갤러리'도 둘러볼 만하다. 17장의 대  
형 사진을 통해 홍콩 야경의 변천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피크 타워의 '라이온스 파빌리온(Lions Pavilion)' 전망대는 중국 전통 양식의 지  
붕 아래서 홍콩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1976년 건축된 건물로 규모는  
작지만 센트럴의 야경과 피크 트램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입  
장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홍콩 섬의 센트럴과 성완(上環)을 잇는 퀸스 로드(Queens Road)의 중간에서 언  
덕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800여m의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  
홍콩에서 가장 트렌디한 공간인 소호(SOHO)에 닿는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  
선 레스토랑과 바는 모두 예쁘고 아기자기한 미술품처럼 꾸며져 있다. 관광객들은 창가나 거리

가 내려다보이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맛깔스런 요리를 탐닉한다.  
스톤턴 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리면 가장 먼저 페페로니스(Pepperoni's)라는 이탈리아 피자  
와 파스타 전문점을 만난다. 화덕에서 구워내는 피자와 파스타, 해물 요리가 유명하다. 스톤턴  
가를 따라서는 지중해 요리 전문인 시로코(Scirocco), 영국식 홍차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포르  
토벨로(Portobello+), 스페인 레스토랑인 라코미다(La Comida), 아르헨티나 스테이크를 내는 라  
팜파(La Pampa) 등 다양한 레스토랑이 자리한다.

맛의 향연은 한 블록씩 떨어진 엘진 가와 할리우드 로드로 이어진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팻  
안젤로(Fat Angelo's), 태국 음식과 와인이 전문인 체디(Chedi), 멕시코 식당인 카람바(Caramba),  
인도 요리 전문점 자산(Jashan) 등은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모두 뛰어난 곳들이다.



**Enjoy Spot** IFC몰 4층 옥상 공원 88층의 IFC 빌딩은 홍콩의 랜드마크이다. 센트럴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IFC몰, 원 IFC빌딩, 포시즌스 호텔과 연결돼 있으며, 센트럴 역에서 페리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 4층의 옥상 공원은 홍콩의 젊은이들로부터 각광받는 장소로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바가 들어서 있다.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홍콩 젊은이들의 휴거운 밤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특히 벤치에 앉아 센트럴, 미드 레벨, 카오룽 반도의 야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란콰이퐁(Lan Kwai Fong)** 소호 인근에 위치한 홍콩 섬 최대의 유흥가로 식당, 바, 클럽 등이 준비하다. 외국인 여행자와 젊은이들은 소호에서 저녁 식사를 즐긴 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나 와인, 양주를 즐긴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해피아워로 활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중국 상하이 낮보다 아름다운 현대 도시



상하이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매년으로 뿌연던 상하이의 하늘은 까맣게 덧칠되고, 회색빛 도심은 장미처럼  
붉고 화사하게 물든다. 관광객들은 낮 동안의 비쁜 길들과 복적거리에서 벗어나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밤을 보낸다. 도심의 밤거리와 황푸(黃浦) 강변의 야경은 홍콩의 '백만 불짜리 야경' 만큼 화려하고 낭만적이다.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 상하이의 이  
미지는 지극히 현대적이다. 하늘  
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황푸 강  
연안의 화려한 야경. 난징시루(南京西路)를 걷  
는 세련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유럽이나 서  
울의 변화가가 떠오른다.

황푸 강 너머로 와이탄(外灘)을 바라보는 푸둥(浦東) 지역은 높게 뻗은 고층 건물과 구조물이 경  
쟁하듯 들어선 곳이다. 상하이 상류층들은 밤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 101층의 상하이 세계금융  
센터(上海環球金融中心, 492m), 상하이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동광명주(東方明珠) TV타워, 진  
마오타워(金茂大廈) 등으로 찾아든다.

상하이의 야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동광명주의 지상 90m, 263m, 350m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  
에 오른다. 267m에는 회전식 스카이라운지 뷔페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어 식사를 즐기며 야  
경을 볼 수 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수 있는데, 발아래로 황푸 강과 상하이의 황홀  
한 야경이 펼쳐진다.

진마오타워 88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동광명주 최고층 전망대보다 높아 야경을 감상하기 좋다.  
여행 경비가 넉넉하다면 87층에 위치한 현대식 바 '클라우드9'에  
서 맥주나 칵테일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유유히 흐르는 황푸 강 건너 와이탄의 야경은 동광명주 북쪽의 빈  
장다다오(濱江大道)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감상하면 된다.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사람도 별로 없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밤  
풍경을 즐길 수 있고, 강변의 레스토랑, 카페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상하이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황푸 강 서안을  
따라 유럽풍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즐비한 와이탄 남쪽의 진링둥루  
(金陵東路) 페리 터미널에서 유람선을 타면 밤풍경의 진면목을 발견  
할 수 있다.

유람선은 천천히 북쪽을 향해 이동해가며 강 주변의 풍경을 보여준다.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진마오타워 등 푸둥 지역의 고층 빌딩들이 휘황  
한 조명으로 밤하늘을 수놓고, 커다란 광고판을 실은 배는 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도심의 야경에 화려함을 더한다.

남쪽으로 이동하면 조명을 밝힌 와이탄 지역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곳  
의 건물들은 1920년대 외국 자본에 의해 상하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유행하던 아르데코 양식의 건  
축물들이 은은한 노란 조명 속에서 유럽을 느끼게 한다.

좀 더 독특한 분위기의 밤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옛 프랑스 조계 지  
역의 건물들을 개조한 노천카페와 술집, 레스토랑이 있는 런민(人民) 광  
장 남쪽의 신티엔디(新天地)를 방문하도록 한다. 해 질 무렵이면 카페와  
레스토랑이 하나 둘씩 조명을 밝히며, 낭만적인 공간으로 변신한다.

마음에 드는 카페나 술집의 노천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떠끈한  
차나 와인, 맥주를 즐기다 보면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낭만  
적인 느낌이 전해진다.

**Enjoy Spot** **난징루(南京路)** 난징루를 따라 화려한 쇼핑가가 이어진다. 난징시루 쪽에  
는 고급 백화점과 브랜드 숍이 늘어서 있고, 난징둥루 쪽에는 오랜 역사를  
지랑하는 쇼핑몰과 전문 상점이 모여 있다. 난징시루 역 서쪽에 유럽 스타  
일의 시빅 스퀘어(Citic Square), 최고급 매장이 들어서 플라자 66, 시티 플  
리자, 매롱진이세탄 등 고급 백화점이 늘어서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  
짜와 랑콤 매장을 비롯한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이 거리를 채우고 있다.  
난징둥루는 저렴한 생활용품점부터 100년 이상 된 전문 상점과 명품 브  
랜드가 입점한 백화점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지녔다. 밤풍경의 경우, 난징  
시루가 정돈된 인상을 준다면, 난징둥루는 축제처럼 밝고 화려하다. 화려  
한 네온사인과 조명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허룽밤이 짧게 느껴지는 곳들  
이다.



## 필리핀 마닐라 먹고 마시고 놀기 좋은 열정의 도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금요일 밤을 피버 프라이데이(Fever Friday) 라고 부른다. 금요일 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해변, 유흥가로 몰려나와 열정적으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술을 마신다. 이들의 열에 들뜬 축제 같은 밤은 새벽까지 이어져 여행자들마저 잠 못 이루는 밤을 전전하게 한다.

**마**닐라의 밤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도심 서쪽의 마닐라 베이 워크(Manila Bay Walk)로 가야 한다. 한낮에는 열대의 태양이 작열하는 해변 공원이지만 태양이 저물 무렵부터는 노천카페가 문을 열고,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해가 질 무렵 이곳에 도착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마닐라 만의 석양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미국 대사관부터 요트 클럽까지 길게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낙천적인 필리핀 사람들의 흥겨운 밤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노천카페의 무대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탁자를 차지한 사람들은 푸짐한 안주에 맥주를 마시며 흥겨운 대화를 나눈다. 마치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뒤통이 같다. 인디밴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선사하는 수준 높은 노래들은 밤바다에 울려 퍼지며 이국의 밤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준다. 여흥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금요일이면 다음날 새벽까지도 계속된다.

마닐라 베이 워크의 분위기가 낭만적이라면 말라테(Malate)나 마카티(Makati)의 밤은 열정적이고 화려하다. 마닐라 베이 워크 동쪽에 위치한 말라테에는 대형 호텔과 쇼핑센터, 나이트클럽과 바가 자리하고 있다. 거리에 인적이 뜸한 밤늦은 시간에도 나이트클럽이나 바는 필리핀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인다.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필리핀 젊은이들과 금세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말라테 남동쪽의 마카티 시는 마닐라에서 가장 도회적인 분위기로 아얌(Ayala) 센터, 록웰(Rockwell) 센터 등 대형 쇼핑몰과 PBCOM 타워, G.T. 인터내셔널 타워 등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페닌슐라 마닐라, 상그릴라 호텔 마카티, 인터컨티넨탈 호텔 마닐라 등 5성급 호텔도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세련되고 독특한 클럽과 바가 즐비해 마닐라의 트렌디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직원들이 잠옷을 입은 채 일하고, 마치 침실에 들어선 듯한 분위기의 테이블이 마



련된 '베드(Bed)', 강한 비트의 음악과 함께 젊은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이스 보드카 바(Ice Vodka Bar)', 메탈과 록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업생트(Absinth)' 등 특별한 분위기의 클럽과 바에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열기를 경험할 수 있다.

세련된 분위기에서 밤새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따귀(Taguig) 시의 포트(The Port) 지역이 제격이다. 저녁식사부터 술 마시기, 춤추기까지 세련된 분위기에서 나이트라이프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모로코 스타일의 퓨전 펍 '페즈(Fez)'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주류를 즐길 수 있고, 필리핀 상류층 젊은이들이 찾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엠버시 클럽(Embassy Club)'에서는 맥주나 위스키를 훌쩍이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기 좋다.

## 싱가포르 건전한 밤 문화, 낭만과 즐거움이 있다

싱가포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나라이다. 그래서지 밤나들이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막상 나서보면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건전하게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곳에서는 낭만적인 열대의 밤을 흥겹게 하는 다양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여행자가 밤 문화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는 오차드 로드(Orchard Road), 모하메드 술탄 로드(Mohamed Shultan Road), 클라크 키(Clark Quay)와 보트 키(Boat Quay) 등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오차드 로드는 '쇼핑의 메카'다.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쇼핑으로 밤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거리를 따라 준비하게 들어선 쇼핑물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물건을 갖추고 있다.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면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쇼핑하기 편리하다.

거리에 북적이는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거리 악사의 연주와 각종 퍼포먼스는 아간 쇼핑의 덩이다. 크고 작은 거리와 골목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술집과 나이트클럽, 카페들이 있어 쇼핑 이후 들러도 좋을 것 같다.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모하메드 술탄 로드가 좋다. 오차드 로드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으로 거리와 골목에는 와인 바를 비롯해 나이트클럽, 좋은 분위기의 야외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복장을 검사하기 때문에 슬리피에 반바지 차림이라면 입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의 진정한 나이트 라이프를 경험하고 싶다면 클라크 키와 보트 키로 대표되는 싱가포르 강변 지역이 제격이다. 노천카페와 고급 레스토랑, 시골벽적인 라이브 바, 세계의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펍 등이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다.

클라크 키는 19세기 말 부두와 창고로 사용됐던 곳이다. 지금은 낡고 허름했던 창고식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파스텔 톤의 건물로 변화됐다. 어둠이 찾아오면 클라크 키의 건물들은 화려한 불빛에 휩싸이고, 강물에 반사된 조명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보트 키에서는 황홀한 싱가포르의 야경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다. 높이 솟은 셉턴 웨이(Shanton Way)를 비롯한 빌딩들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어 강물에 반사된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이곳 야외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싱가포르 슬링이나 타이거 맥주 한잔을 들이켜는 여유를 갖도록 한다. **R**

**Enjoy Tip**

**리버 보트 관광** 싱가포르의 상징인 사자 모양의 상이 있는 멀라이언(Merlion) 공원과 클라크 키, 보트 키에서는 리버 보트(River Boat)가 출발한다. 리버 보트를 이용하면 싱가포르 강을 따라 이동하며 싱가포르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강변으로 빌딩과 카페, 레스토랑, 펍들의 화려한 모습을 구경하고, 조명 밝힌 아름다운 다리를 지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강을 지날 때 마음에 드는 카페나 펍을 고른 후 보트에서 내려 걸어 이동하도록 한다.

